

# 벨뷰 통행금지령 재발령

**업데이트:** 린 로빈슨 벨뷰 시장은, 타인에게 해를 입힐 의도의 무기 소지를 벨뷰 특정 지역에서 금지하는 기존의 민간 비상령을 개정하였습니다.

**신규 명령**으로 무기소지 금지 영역이 현행 통행금지령 영역을 넘어선 지역까지 확장되며, 시내 기타 상업 및 업무시설 구역들도 포함됩니다 ([지도](#)). 여기에는 금지된 무기 및 활동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.

본 명령은 5월 31일에 발령된 시 민간 비상사태 선포가 종료될 때까지, 혹은 그 이전에 종료될 때까지 시행됩니다.

로빈슨 시장은 대중의 소란 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6월 1일 오후 5시부터 6월 2일 오전 5시까지 벨뷰 다운타운 지역 내의 [통행금지령을 발령하는 비상령](#)에 서명하였습니다.

통행금지령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, 법집행관 및 기타 응급대처요원, 공무원 및 허가받은 대중매체를 제외하고는, 그 누구도 공공용지, 공원, 그리고 서쪽으로는 100가 애비뉴 노스이스트, 남쪽으로는 메인스트리트/사우스이스트 퍼스트 스트리트, 동쪽으로는 120가 애비뉴 노스이스트/노스이스트 퍼스트 스트리트, 북쪽으로는 노스이스트 12가 스트리트으로 대략 경계지어진 공공 장소([지도](#))에 입장하거나 머무는 것이 금지됩니다.

일반 통행금지령은 직장에서 또는 직장으로 직접 통근하는 사람,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, 위험한 상황에서 대피하는 사람, 본인 또는 가족/가정 구성원을 위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벨뷰시는 어제 다운타운 지역의 시위가 공공기물파손자 및 약탈자들로 인해 전 지역에 걸친 재산 피해 및 절도 행위로 격화된 이후 [민간 비상사태](#)를 선포하였습니다. 시장은 또한 통행금지령 구역 내의 [무기소지 금지 민간 비상령](#) 또한 발령하였습니다.

벨뷰시는 사업자들이 통행금지령 시간 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창문과 입구를 보호하는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. 벨뷰시 경찰과 주 방위군이 배치되어 움직임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으며, 기타 기관들도 지원하도록 대기 중입니다.

2020/06/01 발행